

사마리아 종교의 타헤브(Taheb)

조석민*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신약 성서에 암시된 사마리아 종교¹⁾의 ‘타헤브’(טַהֵב, Taheb)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타헤브를 가장 잘 암시해주고 있는 신약 성서 본문은 요한복음 4:19의 “그 여인이 그(예수)에게 말하되, ‘주여, 내가 이해하기로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와 4:25의 “그 여인이 그(예수)에게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이다.²⁾ 요한복음의 이 본문들은 사마리아 종교의 타헤브에 대한 지식과

* 에스라 성경 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이 글에서 ‘사마리아 종교’는 사마리아인들이 고백한 신조를 근거로 신앙생활을 했던 종교를 의미하며 현재 그 내용을 사마리아 문헌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사마리아 종교’에 관하여 R. T. Anderson and T. Giles, *The Keeper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Samaritans* (Peabody: Hendrickson, 2002), 117-133을 참조하라.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사마리아’(Σαμαρεία, Samaria) 또는 ‘사마리아인’(Σαμαρίτης, Samaritan)이란 단어는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공관복음서 가운데 ‘사마리아인’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0:5에 한 번 사용되었지만, 마가복음에는 두 단어 모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누가복음은 ‘사마리아’가 1회(17:11), ‘사마리아인’이 3회(눅 9:52; 10:33; 17:16) 사용되었고, 사도행전에는 ‘사마리아’가 7회(행 1:8; 8:1, 5, 9, 14; 9:31; 15:3), ‘사마리아인’이 1회(행 8:25) 등장한다. 요한복음은 ‘사마리아’가 3회(요 4:4, 5, 7), ‘사마리아인’이 6회(요 4:9<3회>, 39, 40; 8:48) 사용되었다. 문상희, 『사도행전 주석』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161-162; 조석민, 『요한복음의 새관점』 (서울: 솔로몬, 2008), 181-205를 참조하라.
- 2) 요한복음 4:19, 25의 한글 번역은 필자의 사역(私譯)이며, 이 본문들과 관련된

이해가 없으면 해석적 오류를 범할 여지가 많은 본문이다. 이런 점에서 타헤브에 관한 연구는 신약 성서 해석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첫째, 사마리아인 및 사마리아 종교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고찰할 것이다. 둘째, 사마리아 종교, 특히 사마리아 신학의 종말론에 등장하는 타헤브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신약 성서에 암시된 타헤브에 관하여 요한복음 4:19과 4:25의 의미를 해석하며 논의할 것이다.

사마리아 종교에 등장하는 타헤브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³⁾ 그 자료들 가운데 일차 자료는 사마리아 오경(the Samaritan Pentateuch),⁴⁾ 사마리아 탈군(the

타헤브에 관하여 이 글 뒷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이 글에서 신약 성서의 인용은 『개역개정』을 사용하며, 기타 번역을 사용할 경우 그것을 언급할 것이다.

- 3) 사마리아 종교와 관련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J.-P. Rothschild, "Samaritan Manuscripts: A Guide to the Collections and Catalogues," A. D. Crown, ed., *The Samaritans*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89), 771-794; R. T. Anderson, "Samaritans," D. N.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 (New York: Doubleday, 1992), 940-947; B. K. Waltke, "Samaritan Pentateuch," D. N.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 (New York: Doubleday, 1992), 945-946; A. L. Loewenstamm, "Samaritan Chronology," *Encyclopaedia Judaica* 14 (Jerusalem: Keter, 1972), 748-752; J. Bowman, *Samaritan Documents Relating to their History, Religion and Life*, Pittsburgh Original Texts and Translations Series 2 (Pittsburgh, PA: Pickwick Press, 1977); J. A. Montgomery,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Eugene: Wipf & Stock, 2006; org. ed. 1907).
- 4) R. T. Anderson and T. Giles, *Tradition Kept: The Literature of the Samaritans* (Peabody: Hendrickson, 2005), 3-47; B. K. Waltke, "Samaritan Pentateuch," 945-946을 참조하라. 사마리아 오경은 히브리어 본문의 교정판이다. 사마리아 오경에 사용된 히브리어 서체는 마소라 본문에 사용된 네모꼴 히브리어 서체 (square script), 일명 앗시리아 서체(Assyrian script)가 아니라, 페니키아-고대 히브리어 서체(Phoenician-Old Hebrew script), 즉 고대 히브리어 서체(paleo-Hebrew script)로 쓰여 있다.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을 비교할 때 약 6,000여 곳 차이가 나지만 철자상의 차이가 그 주종을 이루고, 다르다고 해도 본문의 의미상 다른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마소라 본문과 다른 6,000여 곳 중에서 1,900여 곳은 70인 역과 일치한다. 마소라 본문과의 차이점 중에서 극히 일부는 사마리아 사람

Samaritan Targum),⁵⁾ 메마르 말카(Memmar Marqah),⁶⁾ 예식서와 관련된 문헌들(Liturgical Works),⁷⁾ 아세이티르(Asatir),⁸⁾ 사마리아 여호수아(the Samaritan Joshua),⁹⁾ 사마리아 역대기(the Samaritan Chronicles)¹⁰⁾ 등이다.¹¹⁾ 하지만 이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문헌들을 전부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문헌들 가운데 어떤 자료들은 매우 늦은 시기에 작성되었기에 이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호수아는 이 책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 14세기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매우 늦은 연대이기 때문이다.¹²⁾ 사마리아 오경의 경우 약 150개의 자료가 현존하는데, 몇 부분은 부분적인 상태로 남아 있고, 이 자료의 작성 시기는 9세기부터 금세기 초기까지 이른다.¹³⁾ 물론

들의 신학을 반영하는 고의적 변경도 있다[예를 들면, 출애굽기 20:17 끝 부분에 그리십 산(the Mount Gerizim)에 성소를 지으라는 말이 첨가됨]. Kyung-Rae, Kim, “Stud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Septuagint,” Unpublished Ph. D. Thesis (Hebrew University, 1994), 17-20, 311-330을 참조하라.

- 5) Montgomery,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290-293; Anderson, “Samaritans,” 945를 참조하라.
- 6) J. Macdonald, ed. and trans., *Memar Marqah: The Teaching of Marqah*,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4 (Berlin: Alfred Töpelmann, 1963); R. T. Anderson and T. Giles, *Tradition Kept: The Literature of the Samaritans*, 265-358을 참조하라.
- 7) A. E. Cowley, *The Samaritan Litur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09)을 참조하라.
- 8) A. Tal, “Asatir,” A. D. Crown, R. Pummer and A. Tal, eds., *A Companion to Samaritan Studies*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93), 226-228을 참조하라.
- 9) R. T. Anderson and T. Giles, *Tradition Kept: The Literature of the Samaritans*, 49-142를 참조하라.
- 10) Ibid., 221-261; Loewenstamm, “Samaritan Chronology,” 748-752를 참조하라.
- 11) Sukmin Cho, *Jesus as Prophet in the Fourth Gospel*, New Testament Monographs 15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6), 83-84를 보라.
- 12) J. Bowman, *The Samaritan Problem: Studies in the Relationships of Samaritanism,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Pittsburgh Theological Monograph Series 4 (Pittsburgh, PA: Pickwick Press, 1975), 15를 보라.

사마리아 종교와 관련된 자료들이 비록 늦은 기록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내용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내용들이며 사마리아 종교의 초기 모습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마리아 종교와 관련된 문헌들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과 허락된 지면과 필자의 한계로 매우 제한적인 문헌 자료를 사용하여 사마리아 종교의 타헤브에 관해 개괄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신약 성서의 사마리아 관련 본문 해석에 작은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 종교

1.1. 사마리아인의 기원

‘사마리아인’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에 대하여 확실하게 규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먼저 ‘사마리아인들’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 ‘사마리아’의 기원을 살펴보면,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쇼메론’(שֹׁמֶרֹן)의 앗시리아(Assyria) 형태인 ‘사메리나’(Samerina)로 티글랏-필레세르(Tiglath-pileser)의 비문에 처음 등장한다.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샤메라인’(Shamerain)이고, 그리스어로는 ‘사마리아’(Σαμαρία) 또는 ‘사마레이아’(Σαμαρεία)이다.¹⁴⁾ ‘사마리아’라는 단어와 관련된 사마리아인들은 ‘사메림’(שֹׁמֶרִים)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구약 성서 열왕기하 17:29의 ‘쇼메로님’(שֹׁמֶרֹנִי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메림’은 히브리어 ‘쇼메림’(שֹׁמֶרִים)에 해당하는 ‘사마리아인들’이란 의미이다.

13) Anderson, “Samaritans,” 945를 보라.

14) Montgomery,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317-318을 보라.

히브리어 ‘쇼메립’은 ‘준수자들’(遵守者, observers, keepers)이란 의미이다. 사마리아인들은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란 의미로 ‘준수자들’이라고 불렀다.¹⁵⁾ 사마리아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마리아인들 자신의 견해로 이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며, 기원전 11세기경 사사시대부터 시작된 고대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던 신실한 사람들의 직계 후손이라고 믿는다.¹⁶⁾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배교는 일찍이 엘리(Eli) 제사장 시대인 기원전 11세기경부터 시작되었는데(참조, 삼하 2:22-34), 그 당시 제의의 중심이 그리십(Gerizim)에서 실로(Shilo)로 옮겨졌고(참조, 삼상 4:1-11), 결국에는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배교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참조, 삼하 6:1-15). 이런 관점에서 자신들을 북 왕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보지 않고, 북 왕국과 공존했던 ‘구별된 무리’로 이해한다.¹⁷⁾ 이런 점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오경만을 권위 있는 경전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을 열왕기하 17장에서 찾고 있으며, 특히 25-26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⁸⁾ 열왕기하 17:24-41의 기록에 의하면 앗시리아는 기원전 722년 북 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사마리아 지역에 구다(Cuthah)를 포함하여 수많은 메소포타미아 성읍의 사람들을 이주시켜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다. 사마리아 지방에 이주한 여러 나라의 백성들은 본국에서 가져온 우상 숭배 신앙과 이스

15) Ibid., 318-319를 보라.

16) R. T. Anderson and T. Giles, *The Keeper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Samaritans*, 10-13을 보라.

17) Anderson, “Samaritans,” 941; J. Neusner and W. Scott, eds., *Dictionary of Judaism in the Biblical Period 450 B. C. E. to 600 C. E.* (Peabody: Hendrickson, 1996), 613을 보라.

18) R. T. Anderson and T. Giles, *The Keeper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Samaritans*, 13-17을 보라.

라엘의 신앙을 함께 받아들였다(왕하 17:41). 이들 가운데 ‘구다 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자손이 후대에 사마리아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⁹⁾ 에스라 4:1-24; 10:1-44과 느헤미야 4:1-23; 6:1-9에 기록된 유대와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 관계는 두 집단이 오래 전부터 분리되었음을 암시한다.

셋째,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에서 주장하는 사마리아인의 기원이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시대 말기에 제사장 므낫세(Manasseh)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는데, 그리스 시대가 시작된 직후에 그의 장인 산발랏(Sanballat)이 그를 위해 그리심 산에 성소를 지어주었다는 것이다.²⁰⁾ 시간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므낫세와 합류했다고 주장한다.²¹⁾ 이런 점에서 요세푸스는 사마리아 제사장의 합법성을 제사장직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요세푸스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 산에 위치하고 있는 셰켄(Shechem)을 수도로 삼고 살았으며, 알렉산더(Alexander)가 유대인들을 우대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유대인인 척하기로 했다고 기록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의 성품을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한다. ²²⁾

사마리아인의 기원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서로 다른 견해는 정확하게 그 기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특히 신약 성서에 기록된 사마리아인들의 상황은 지금까지 이해되어진 것보다 훨씬 후대에 발전된 형태라는 점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분리된 상황도 이전의 주장들이 암시했던 것만큼 명백하지 않다는 주장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참조, 마 10:5; 눅 9:52;

19) Anderson, "Samaritans," 941을 보라.

20) Josephus, *Jewish Antiquities* XI, Ralph Marcus, et al., trans. (Cambridge/London: Harvard Univ. Press, 1963), 302-312, 340-347을 보라. 한글 번역본 『요세푸스』 2,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54-55, 59-60을 보라.

21) Anderson, "Samaritans," 941-942를 보라.

22) Josephus, *Jewish Antiquities* XI, 340을 보라. 한글 번역본 『요세푸스』 2, 59를 보라.

10:33; 17:16; 요 4:3-42; 8:48; 행 8:4-25).²³⁾

윌리엄슨(H. G. M. Williamson)은 사마리아인의 기원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열왕기하 17장의 기사가 저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²⁴⁾ 윌리엄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열왕기하 17:29의 ‘사마리아 사람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지 ‘사마리아 지역이나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문맥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둘째, 더욱이 후대의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가장 초기의 언급은 그들이 세겜(Shechem)에 거주하였다는 것이다.²⁵⁾ 집회서(Sirach) 50:26은 “사마리아산에 사는 주민들과 불레셋인들, 그리고 세겜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이다.”(공동)라고 기록하고 있다(참조, 마카베오하(2 Maccabees) 5:22-23; 6:2). 또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을 ‘세겜 사람들’(the Shechemites)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²⁶⁾ 셋째, 후대의 사마리아 종교 및 관습은 에스라 4장과 열왕기하 12장에 나타나는 이방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윌리엄슨은 그리스 시대 초기에 세겜에 정착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가능성으로 이들이 앗시리아에 유배되지 않은 북 이스라엘 원주민들(참조, 대하 30:1-27; 34:6; 렘 40:5)의 후손들로 그들 가운데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세겜에 정착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3) H. G. M. Williamson, “Samaritans,” J. B. Green, et al., eds.,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Leicester: Inter Varsity Press, 1992), 726을 보라.

24) Ibid., 724-728을 참조하라.

25) 사마리아와 세겜의 지역에 대하여 Montgomery,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13-23을 참조하라.

26) Josephus, *Jewish Antiquities* XI, 340-347; Josephus, *Jewish Antiquities* XII, Louis H. Feldman, trans. (Cambridge/London: Harvard Univ. Press, 1965), 10을 보라. 한글 번역본 『요세푸스』 2, 59-60, 64; R. J. Coggins, *Samaritans and Jews: The Origins of Samaritanism Reconsidered* (Oxford: Basil Blackwell, 1975), 101-115를 참조하라.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북쪽으로는 갈릴리와 남쪽으로는 유대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 중앙 산지 곳곳에 흩어져 거주하던 종족들이었다. 이들은 실제로 고대 세겜 지역에 인접한 그리심 산에 신앙의 초점을 두고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 산에 예배 처소를 세운 것은 그들이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의 신명기 11:26-29과 27:1-8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을 내려다보는 그리심 산 위에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했다(참조, 요 4:20).²⁷⁾

1.2. 사마리아 종교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서로 다른 많은 종교 분파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서(S. J. Isser)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도시데우스(Dositheus)가 A.D. 1세기 초의 종말론적 인물로 신명기 18:15, 18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했다고 주장한다.²⁸⁾ 이서에 의하면 도시데우스는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었던 사마리아인들의 한 분파에서 두드러진 인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마리아 분파는 회당 중심의 평신도 운동으로 유대교 내의 바리새파 운동과 유사한 것이었고, 사두개파와 닮은

27) 사마리아 성전은 BC 128년 요한 힐카누스(John Hyrcanus)가 세겜을 점령했을 때 파괴됐다. G. R. Beasley-Murray, *John*, Word Biblical Commentary, 2nd ed. (Nashville: Thomas Nelson, 1999), 61을 보라. 퍼비스(J. D. Purvis)는 그리심 산의 성전 파괴가 사마리아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마리아 오경의 서체와 철자법이 시작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사마리아 오경 본문의 전승과 수정을 통하여 자체의 고유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J. D. Purvis, “The Samaritans and Judaism,” R. A. Kraft and G. W. E. Nickelsburg, eds., *Early Judaism and its Modern Interpreter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81-98을 참조하라.

28) S. J. Isser, *The Dositheans: A Samaritan Sect in Late Antiquity*, Studies in Judaism in Late Antiquity 17 (Leiden: E. J. Brill, 1976), 163을 보라.

정통적인 제사장 집단이며 그리십 산에 중심을 둔 사마리아인들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를 언급하면서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접촉에 대하여 평가할 때도 매우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 것은 서로 성격이 다른 많은 분파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당시 다양한 분파들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요한복음 4:9에 언급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접촉에 관한 평가도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이라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물을 좀 달라”(7절)는 예수의 요청을 받고 당황스러워할 때, 저자는 그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종교,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깊은 간격과 갈등이 첨예하게 존재했다는 정보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οὐ γὰρ συγχρῶνται Ἰουδαῖοι Σαμαρίταις)는 설명으로 제공한다.²⁹⁾ 바레트(C.K. Barrett)와 모리스(L. Morris)는 자신들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설명을 AD 65년경 또는 66년경의 유대인 정결법의 규정으로 이해한다.³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딸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월경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들은 항상 부정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고정 관념이 있었다.³¹⁾ 이런 관점에

29) 요한복음 4:9에서 사용된 헬라이어 동사 ‘수그크라오마이’(συγχρόομαι)의 뜻은 ‘~을 다루다.’가 아니라, ‘~와 함께 사용하다.’, ‘~와 함께 통용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BDAG, 953-954; L.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NT,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95), 229, 각주 22를 보라.

30) C. K.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An Introduction with Commentary and Notes on the Greek Text*, 2nd ed. (London: SPCK, 1978), 232-233;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229.

31) *Mishnah*, Niddah 4:1, “The daughters of Samaritans are menstruating from their cradle.” 이 글에서 *Mishnah*는 H. Danby, *The Mishnah: Translated from the Hebrew with Introduction and Brief Explanatory Not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3)를 사용한다.

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향아리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생겼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사회 문화적 관습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마리아 오경 및 기타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문헌들이 기록된 시기보다 오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사마리아와 관련된 문헌들의 기록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신조와 신앙 행위들은 문헌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기에 존재했던 초기 형태의 사마리아 종교와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³²⁾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그들의 가장 기초적인 신조의 고백 속에 잘 드러난다.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그 분의 중, 아므람의 아들 모세와 거룩한 율법, 그리고 그리심 산을 믿으며, 복수와 보상의 날을 믿는다.”³³⁾고 말한다.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분명한 한 분 하나님만을 믿었으며, 그 분의 창조 사역과 그 분이 다스리는 천사를 믿었다.³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한 분을 예배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중간 역할을 하는 유일한 선지자로 믿었다.³⁵⁾ 사마리아인들의 유일한 경전은 사마리아 오경으로, 여기에 언급된 그리심 산

32) F. Dexinger, “Samaritan Eschatology,” A. D. Crown, ed., *The Samaritans*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89), 267을 보라.

33) J. Macdonald, *The Theology of the Samaritans* (London: SCM Press, 1964), 49: “We believe only in God and in Moses, the son of Amram, his servant, and in his sacred law, and in the Mount Gerizim and in the day of punishment and reward.” 사마리아 종교의 신조에 대하여 R. T. Anderson and T. Giles, *The Keeper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Samaritans*, 117; Montgomery,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207을 비교해 보라.

34) *Ibid.*, 207-224; 사마리아 신학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Macdonald, *The Theology of the Samaritans*를 참조하라.

35) Montgomery,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225-232를 참조하라.

을 거룩한 장소로 믿었다.³⁶⁾ 사마리아인들은 종말에 관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세상 끝 날에 있을 사마리아 메시아(the Samaritan Messiah)에 대한 기대 사상을 갖고 있었으며, 구약 성서에 기록된 여호와와 날(The Day of Yahwe)처럼 그들은 세상 끝에 올 복수의 날(the Day of Vengeance)과 보상의 날(the Day of Recompense)을 믿고 기다렸다.³⁷⁾ 사마리아 종교에서 메시아는 곧 타헤브로 묘사되었으며, 사마리아인들은 타헤브가 종말에 나타날 것을 믿고 고대했다.³⁸⁾ 사마리아 종교의 타헤브는 천지 창조 후 6,000년이 되었을 때 그리심 산에 예배 처소를 회복할 것이며, 그 후 사마리아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³⁹⁾ 사마리아 종교의 종말론 속에서 타헤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종말론 대부분은 타헤브의 역할을 묘사한다.⁴⁰⁾

요약하면 사마리아인들의 종교 속에 등장하는 신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마리아인들의 신은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이다. 둘째, 모세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셋째, 사마리아 종교에서 오경만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넷째, 사마리아 종교에서 그리심 산이 유일한 성소(聖所)이다. 다섯째, 천지 창조 후 6,000년이 되었을 때 그리심 산의 성소와 사마리아인의 번영을 회복하는 타헤브가 나타나 새로운 통치를 시작할 것이다.⁴¹⁾

36) 그리심(Gerizim)에 관하여 Ibid., 234-239를 참조하라.

37) Macdonald, *The Theology of the Samaritans*, 380-390을 보라.

38) Ibid., 362-371; Montgomery,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239-251; Dexinger, "Samaritan Eschatology," 272-276을 보라.

39) Ibid., 266-292; Montgomery,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239-251을 참조하라.

40) Ibid., 239-251: 몽고메리는 사마리아 종교의 종말론을 논하면서 전체 분량 13쪽에서 타헤브에 관하여 6쪽을 할애했다. Macdonald, *The Theology of the Samaritans*, 357-390 특히 362-371에 묘사된 타헤브를 보라. Dexinger, "Samaritan Eschatology," 266-292 특히 272-276을 참조하라.

41) 사마리아 종교의 신조(creed)를 요약하면 유일신(Monotheism), 모세, 토라(Torah),

2. 타헤브의 의미와 역할

2.1. 타헤브의 의미

사마리아 종교에서 타헤브의 사상은 사마리아 종교의 종말론과 거의 모든 면에 깊은 관련이 있다.⁴²⁾ 사마리아 종교의 종말론에 등장하는 ‘타헤브’(תהב, Taheb)는 그 단어의 어원이 히브리어 ‘수브’(שוב)와 동등한 사마리아 아람어(the Samaritan Aramaic)로 그 의미는 ‘귀환’(return)이나 ‘회복’(restore)이다. 이런 점에서 타헤브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타헤브는 회복자란 의미가 있고, 둘째, 귀환자라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회복자라는 의미의 타헤브는 사마리아 메시아이다. 그는 기적의 사역을 증명하는 표시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올 것이며,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귀환자라는 의미의 타헤브는 백성을 변화시킬 것이며 그들을 회개시키는 존재임을 암시한다.⁴³⁾ 이와 같은 타헤브의 개념과 사상의 배경은 말라기 4:5-6, “보라 여호와 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 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에 등장하는 엘리야에서 비롯되었다.⁴⁴⁾

사마리아 종교의 타헤브가 마지막에 나타날 사마리아 메시아로 등

그리심 산, 복수와 보상의 날(Day of Vengeance and Recompense)에 관한 것으로 특히, 종말에 있을 복수와 보상의 시기에 타헤브 역할을 묘사한다. R. T. Anderson and T. Giles, *The Keeper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Samaritans*, 117-125; Montgomery,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204-251을 보라.

42) Dexinger, “Samaritan Eschatology,” 272를 보라.

43) Montgomery,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246-247을 보라.

44) Ibid., 247을 보라.

장하는 배경은 사마리아 오경의 신명기 18: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와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스너(J. Neusner)와 스코트(W. Scott)가 편집한 유대주의 사전에 의하면 타헤브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종말론적 존재로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이것은 일찍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⁴⁵⁾ 결국 사마리아 종교에서 타헤브는 사마리아 오경의 신명기 18:15-18에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사마리아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타헤브를 사마리아 메시아로 소망하며 기다려왔다. 하지만 사마리아 종교와 문화 속에서 야곱의 모습이 때때로 사마리아 종교의 종말론(Samaritan Eschatology) 속에서 마지막에 올 선지자 타헤브로 간주되기도 했다.⁴⁶⁾ 이런 점에서 사마리아 메시아인 타헤브는 언제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동일시되지 않았고, 드물지만 때때로 야곱의 모습과 비교되었다(참조, 요 4:12).

2.2. 타헤브의 역할

사마리아 문헌들 가운데 어떤 문헌도 타헤브의 정체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전부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일관된 묘사를 찾아보기도 어렵

45) Neusner and Scott, eds., *Dictionary of Judaism in the Biblical Period 450 B. C. E. to 600*, 613; Montgomery,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247-248을 보라.

46) F. Dexinger, *Der Taheb: Ein “messianischer” Heilsbringer der Samaritaner* (Salzburg: O. Müller, 1986), 43; idem, “Samaritan Eschatology,” 272를 참조하라. A. D. Crown, “F. Dexinger, ‘Der Taheb,’” *JQR* 80 (1989), 139-141을 참조하라.

다. 텍싱거(F. Dexinger)가 자신의 책에서 요약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타헤브는 야곱의 자손으로, 셋(Seth)의 자손으로, 비느하스(Pinhas)의 자손으로, 모세의 자손으로, 노아의 자손으로 묘사되었다.⁴⁷⁾ 타헤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명기 18:18에 근거하여 모세와 같은 존재일 것이라고 이해한다. 타헤브가 어느 때 나타나질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실 때 회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다.⁴⁸⁾ 타헤브는 동쪽에서 그리심 산으로 올 것이며, 그는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그리고 거룩한 언약궤를 가지고 올 것이다.⁴⁹⁾ 타헤브가 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끝이 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⁵⁰⁾ 타헤브는 선지자이며, 진리를 계시할 것이다.⁵¹⁾ 하지만 타헤브는 왕으로도 묘사되었고, 두 번째 왕국을 세울 것이며, 전 세계를 통치할 것으로도 묘사되고 있다.⁵²⁾ 타헤브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그의 정체성과 함께 그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다.

타헤브의 종말론적 모습과 관련하여 신명기 18:18에 묘사된 것은 본래 사마리아 사상이 아니라 주전 2세기경에 시작된 유대인의 일반적인 사상이었다. 하지만 사마리아 종교의 타헤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사상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사마리아 오경의 출애굽기 20장은 그리심과 관련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한다.⁵³⁾ 이런 점에서 타헤브 사상은 사마리아 오경을 근거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18:18에서 발전된 사상이 그 배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몽고메리(J. A. Montgomery)는 타헤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천년왕국을 소개하는

47) Dexinger, *Der Tabeb: Ein "messianischer" Heilsbringer der Samaritaner*, 43, 81, 89, 171; idem, "Samaritan Eschatology," 272를 보라.

48) Dexinger, *Der Tabeb: Ein "messianischer" Heilsbringer der Samaritaner*, 43, 71, 87, 119을 보라.

49) Ibid., 50, 56, 90을 보라.

50) Ibid., 92를 보라.

51) Ibid., 90, 117을 보라.

52) Ibid., 89, 90, 91, 95을 보라.

53) Dexinger, "Samaritan Eschatology," 275-276을 보라.

것으로 이때는 악의 힘과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는 시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라고 한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는 세상의 종말로 타헤브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며,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이다(참조, 요 4:42).⁵⁴⁾ 타헤브의 역할은 참된 예배를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시킬 것이고, 진리를 계시할 것이다(참조, 요 4:25).⁵⁵⁾ 타헤브는 사마리아 종교의 종말론적 선지자로 묘사되었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세상 끝 날에 올 마지막 사마리아 메시아인 선지자로 고대하고 있었다. 타헤브가 선지자로 묘사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등장하는 것을 사마리아 문헌에서 자주 볼 수 있다.⁵⁶⁾

요약하면 타헤브의 정체는 사마리아 문헌에서 여러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그 여러 모습 속에서 그의 역할을 짐작하게 한다. 타헤브의 역할은 그 단어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회복자로서 그리심 산에 예배 처소를 회복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고,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다. 타헤브는 귀환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타헤브는 사마리아 문헌 속에서 사마리아 메시아로,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3. 신약 성서에 암시된 타헤브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신약 성서에 타헤브가 암시된 본문은 요한복음 4:19과 4:25이다.⁵⁷⁾ 이 본문들이 어떤 점에서 사마리아 종교의 타헤

54) Montgomery,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249-250을 보라.

55) Macdonald, *The Theology of the Samaritans*, 362-365를 보라.

56) Cho, *Jesus as Prophet in the Fourth Gospel*, 85-87을 참조하라.

57) 요한복음 4:19, 25의 번역은 필자의 사역이며, 요한복음 4장에서 다른 구절들은 『개역개정』을 사용한다. 이 구절들과 관련된 보다 깊은 논의는 조석민, 『요한

브를 암시하고 있는가?

3.1. 요한복음 4:19과 타헤브

요한복음 4:19에서 “그(사마리아) 여인이 그(예수)에게 말하되, ‘주여, 내가 이해하기로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αῖκ· κύριε, θεωρῶ ὅτι προφήτης εἶ σύ)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종교인 사마리아 종교와 문화 속에서 기다려온 종말론적 선지자인 타헤브의 이미지를 예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종교와 문화의 전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증거가 요한복음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첫째,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물을 좀 달라”(7절)는 예수의 요청을 받았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사마리아 종교 및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기에 유대인인 예수께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요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저자는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매우 당황스럽게 반응한 것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종교와 문화 및 전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암시하며 복음서의 저자는 그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둘째,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하게 자신의 조상을 ‘야곱’이라고 언급하면서 예수께 질문하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12절)라고 묻는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자기의 조상 야곱과 비교하면서 그의 정체성을 묻는 이유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종교와 문화 역사적 전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종교에서 야곱은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이다.⁵⁸⁾

복음의 새관점』, 181-205를 참조하라.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아브라함이라고 말한다(참조, 요 8:53).⁵⁹⁾

셋째, 사마리아 여인이 19절에서 예수께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προφήτης εἶ σύ, ‘프로페테스 에이 수’)라고 고백한 것은 그리스어 문법에서 관사의 생략이 가능한 문법 구조로 영어로 번역할 때, ‘You are the prophet.’이며, 한글 번역에서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⁶⁰⁾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종교와 문화 속에서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어찌면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그 선지자’를 예수와 일치시킨 것이다. 사마리아 종교에서 ‘그 선지자’는 사마리아 오경의 신명기 18:15-18에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타헤브로 사마리아인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인물이다.⁶¹⁾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예수를 인식한 후, 그동안 기다려온 종말의 선지자 ‘타헤브’라고 확신하고 그에게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넷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사마리아 선지자 타헤브로 인식한 후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20절)고 말하며 예배 처소를 대화의 주제로 제시하기 때문이다.⁶²⁾ 당시 예배 장소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민감한 종교 문제 가운데

58) J. H. Neyrey, “Jacob Traditions and the Interpretation of John 4:10-26,” *CBQ* 41 (1979), 424-425를 보라.

59)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달리 자신들의 조상을 분명히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8:53에서 유대인들은 예수와 논쟁하면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한다.

60) E. C. Colwell, “A Definite Rule for the Use of the Article in the Greek New Testament,” *JBL* 52 (1933), 12-21; Cho, *Jesus as Prophet in the Fourth Gospel*, 181-182; Barre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236을 보라.

61)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2* (New York: Doubleday, 1966-1970), 171; F. J. Moloney, *The Gospel of John*, Sacra Pagina 4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127-131을 보라.

62) *Ibid.*, 132를 보라.

하나이기에 이 여인은 예수와의 대화 속에서 이것을 화두(話頭)로 삼았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경건한 종교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암시일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사마리아 선지자 타헤브로 인식한 예수가 예배 장소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듣기 위한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 문제를 예수께 언급한 것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종교와 문화에 뿌리를 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3.2. 요한복음 4:25과 타헤브

요한복음 4:25의 “그 여인이 그(예수)에게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λέγει αὐτῷ ἡ γυνή· οἶδα ὅτι Μεσσίας ἔρχεται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ός· ὅταν ἔλθῃ ἐκεῖνος, ἀναγγελεῖ ἡμῖν ἅπαντα)라고 대답한 것은 자신이 사마리아 종교 속에서 기다려온 종말의 메시아인 타헤브의 모습을 예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마리아 종교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마리아 메시아인 타헤브의 역할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종교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메시아인 타헤브가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언급한 ‘메시아’(Μεσσίας)는 사마리아 메시아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χριστός)이다(참조, 요 1:41).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메시아”(Μεσσίας ἔρχεται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ός, ‘메시아스 엘케타이 호 레고메노스 크리스트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알고 고대하고 있는 사마리아 메시아인 타헤브가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부르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⁶³⁾

63) Ibid., 129-130, 133-134; Beasley-Murray, *John*, 62를 보라.

둘째,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 의하면 사마리아 메시아인 타헤브는 ‘모든 것을 알려 주실 분’(ἀναγγελεῖ ἡμῖν ἅπαντα, ‘아나γγελ레이 헤몬 하판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예수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오경에서 약속한 ‘그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와서 모든 것을 알려주며 회복시켜 줄 것을 고대하는 것이다.⁶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메시아가 오시면”이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 메시아인 타헤브가 오실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타헤브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이라는 의미는 예배 처소를 포함한 사마리아인들의 종말론적 기대가 모두 성취될 것을 암시한다.

요약하면 요한복음 4:19과 4:25은 사마리아 종교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메시아 타헤브를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종교와 문화 속에서 예수를 타헤브로 인식하였고, 그를 자신이 고대하던 사마리아 오경의 신명기 18:15, 18에 약속된 ‘그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이다.⁶⁵⁾

64)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내가 곧 그 사람이다.’(26절)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이 여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4:26은 이 복음서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선언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올바른 메시아를 알려주시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종교로 인하여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와 대화를 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언하지만 반신반의 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것에서 암시되어 있다(29절).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종교의 ‘메시아’인 ‘타헤브’를 기다려 왔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조석민, 『요한복음의 새관점』, 181-205를 참조하라.

65)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사마리아 선지자인 타헤브로 이해한 해석에 관하여 제한된 지면 관계로 자세한 언급할 수 없기에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요한복음의 새관점』, 181-205에서 참조하라.

결론

지금까지 사마리아 종교의 타헤브(תהב, Taheb)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사마리아인의 기원과 종교를 고찰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메림’(שמרם)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은 열왕기하 17:29의 ‘쇼메로님’(שמרונים)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사메림’은 히브리어 ‘쇼메림’(שמרים, ‘준수자들’)에 해당하는 ‘사마리아인들’이란 뜻으로, 이들은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한다. 사마리아인의 기원에 대하여 세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제기되었지만 그 기원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사마리아인들이 앗시리아에 유배되지 않은 북 이스라엘 원주민들의 후손들로 그들 가운데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세겜에 정착했다는 주장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었으며, 모세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사마리아 종교에서 절대적 권위는 오직 사마리아 오경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한다. 사마리아 종교에서 그리심 산은 유일한 성소(聖所)이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의 성소와 사마리아인의 번영을 회복하는 타헤브가 나타나 새로운 통치를 시작할 것을 믿었다.

둘째, 사마리아 종교에 등장하는 타헤브의 의미와 역할을 고찰하였다. 사마리아 종교의 종말론에 등장하는 ‘타헤브’는 그 단어의 어원이 히브리어 ‘수브’(שוב)와 동등한 사마리아 아람어(the Samaritan Aramaic)로 그 의미는 ‘귀환’ 또는 ‘회복’이다. 타헤브의 역할은 그 단어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회복자로서 그리심 산에 예배 처소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며,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타헤브는 귀환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타헤브는 사마리아 문헌 속에서 사마리아 메시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셋째, 신약 성서에 암시된 타헤브에 관하여 요한복음 4:19과 4:25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요한복음 4장의 두 본문은 사마리아 종교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메시아 타헤브를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종교와 문화 속에서 예수를 만난 후 그를 사마리아 메시아 타헤브로 인식하였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자신이 고대하던 사마리아 오경의 신명기 18:15, 18에 약속된 ‘그 선지자’로 확실히 믿고 19절에서 예수께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주요어>

타헤브, 사마리아 메시아, 사마리아 선지자,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종교,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

<Key Words>

Taheb, Samaritan Messiah, Samaritan Prophet, Samaritans, Samaritan Religion, John's Gospel, Samaritan Woman

* 접수일 2009년 9월 7일, 수정일 2009년 9월 11일, 게재 확정일 2009년 9월 17일

참고문헌

- 문상희, 『사도행전 주석』,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 요세푸스, 『요세푸스』 2,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조석민, 『요한복음의 새관점』, 서울: 솔로몬, 2008.
- Anderson, R. T. and T. Giles, *The Keeper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Samaritans*, Peabody: Hendrickson, 2002.
- Anderson, R. T. and T. Giles, *Tradition Kept: The Literature of the Samaritans*, Peabody: Hendrickson, 2005.
- Anderson, R. T., “Samaritans,” D. N.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 New York: Doubleday, 1992, 940-947.
- Barrett, C. K.,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2nd ed., London: SPCK, 1978.
- Bauer, W. et al., eds.,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BDAG)*, 3rd e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2000.
- Beasley-Murray, G. R., *John*, Word Biblical Commentary, 2nd ed., Nashville: Thomas Nelson, 1999.
- Bowman, J., *Samaritan Documents Relating to their History, Religion and Life*, Pittsburgh Original Texts and Translations Series 2, Pittsburgh, PA: Pickwick Press, 1977.
- Bowman, J., *The Samaritan Problem: Studies in the Relationships of Samaritanism,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Pittsburgh Theological Monograph Series 4, Pittsburgh, PA: Pickwick Press, 1975.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2*, New York: Doubleday, 1966-1970.
- Cho, Sukmin, *Jesus as Prophet in the Fourth Gospel*, New Testament Monographs 15,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6.
- Coggins, R. J., *Samaritans and Jews: The Origins of Samaritanism Reconsidered*, Oxford: Basil Blackwell, 1975.
- Colwell, E. C., “A Definite Rule for the Use of the Article in the Greek New Testament,” *JBL* 52 (1933), 12-21.
- Cowley, A. E., *The Samaritan Liturgy*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09.

- Crown, A. D., "F. Dexinger, 'Der Taheb'," *JQR* 80 (1989), 139-141.
- Crown, A. D., R. Pummer and A. Tal, eds., *A Companion to Samaritan Studies*,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93.
- Crown, A.D., ed., *The Samaritans*,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89.
- Danby, H., *The Mishnah: Translated from the Hebrew with Introduction and Brief Explanatory Not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3.
- Dexinger, F., "Samaritan Eschatology," A. D. Crown, ed., *The Samaritans*, Tübingen: J. C. B. Mohn/Paul Siebeck, 1989, 266-292.
- Dexinger, F., *Der Taheb: Ein "messianischer" Heilsbringer der Samaritaner*, Salzburg: O. Müller, 1986.
- Isser, S.J., *The Dosithians: A Samaritan Sect in Late Antiquity. Studies in Judaism in Late Antiquity 17*, Leiden: E. J. Brill, 1976.
- Josephus, *Josephus*, X, Thackeray, H. St. J., et al., trans.,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26-1965.
- Josephus, *Josephus*, XI, Ralph Marcus, et al., trans.,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 Josephus, *Josephus*, XII, Louis H. Feldman, et al., trans.,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Kim, Kyung-Rae, "Stud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Septuagint," Unpublished Ph. D. Thesis, Hebrew University in Jerusalem, 1994.
- Kraft, R. A. and G. W. E. Nickelsburg, eds., *Early Judaism and its Modern Interpreter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 Loewenstamm, A. L., "Samaritan Chronology," *Encyclopaedia Judaica* XIV, Jerusalem: Keter, 1972, 748-752.
- Macdonald, J., ed. & trans., *Memar Marqab: The Teaching of Marqab. Beib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4, 2, Berlin: Alfred Töpelmann, 1963.
- Macdonald, J., ed. & trans., *The Theology of the Samaritans*, London: SCM Press, 1964.
- Moloney, F. J., *The Gospel of John*, Sacra Pagina,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 Montgomery, J. A., *The Samaritans, the Earliest Jewish Sect: Their history, Theology, and Literature*, Eugene: Wipf & Stock, 2006; org. ed. 1907.
- Morris, L.,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NT,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95.
- Neusner, J. and W. Scott, eds., *Dictionary of Judaism in the Biblical Period 450 B.C.E. to 600 C. E.*, Peabody: Hendrickson, 1996.
- Neyrey, J.H., "Jacob Traditions and the Interpretation of John 4:10-26," *CBQ* 41 (1979), 419-437.
- Purvis, J. D., "The Samaritans and Judaism," R. A. Kraft and G. W. E. Nickelsburg, eds., *Early Judaism and its Modern Interpreter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81-98.
- Rothschild, J.-P., "Samaritan Manuscripts: A Guide to the Collections and Catalogues," A. D. Crown, ed., *The Samaritans*,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89, 771-794.
- Waltke, B. K., "Samaritan Pentateuch," D. N.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 New York: Doubleday, 1992, 932-940.
- Williamson, H. G. M., "Samaritans," J. B. Green, et al., eds.,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2, 724-728.

<초록>

사마리아 종교의 타헤브(Taheb)

조석민

(에스라 성경 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이 글은 신약 성서에 암시된 사마리아 종교의 ‘타헤브’(תַּהֵב, Taheb)에 관한 연구이다. 신약 성서 가운데 요한복음 4:19, 25은 사마리아 종교의 타헤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신약 성서 해석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첫째, 사마리아인의 기원과 종교를 고찰하였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메림’(Samerim)에서 비롯되었는데, ‘사메림’은 히브리어 ‘쇼메림’(שׁמֵרִים, ‘준수자들’)에 해당하며 ‘사마리아인들’은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의미이다. 이 글에서 사마리아인의 기원에 대하여 세 가지 서로 다른 견해를 살펴보았다. 사마리아인들은 앗시리아에 유배되지 않은 북 이스라엘 원주민들의 후손들로 그들 가운데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세겜에 정착했다는 주장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었으며, 모세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사마리아 종교에서 절대적 권위는 오직 사마리아 오경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한다. 사마리아 종교에서 그리심 산은 유일한 성소(聖所)이며, 그리심 산의 성소와 사마리아인의 변영을 회복하는 타헤브가 나타나 새로운 통치를 시작할 것을 믿었다. 둘째, 사마리아 종교에 등장하는 타헤브의 의미와 역할을 고찰하였다. 사마리아 종교의 종말론에 등장하는 ‘타헤브’는 그 단어의 어원이 히브리어 ‘수브’(שׁוּב)와 동등한 사마리아 아람어(the Samaritan Aramaic)로

그 의미는 ‘귀환’ 또는 ‘회복’이다. 타헤브의 역할은 그 단어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회복자로서 그리심 산에 예배 처소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며,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타헤브는 귀환자로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타헤브는 사마리아 문헌 속에서 사마리아 메시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신약 성서에 암시된 타헤브에 관하여 요한복음 4:19, 25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요한복음 4장의 두 본문은 사마리아 종교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메시아 타헤브를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Taheb in the Samaritan Religion

Prof. Sukmin Cho
(Ezra Bible Institute for Graduate Studies)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find the Taheb in the Samaritan religion which is implied in the New Testament, in particular, John 4:19 and 4:25. For proper understanding on the John's passages, knowledge of the Taheb in the Samaritan religion seems to be necessary, thus this study would be a meaningful result in relation to New Testament studies. In this paper, first of all, the origin of Samaritans and their religion have been investigated. The word 'Samaritans' originally comes from 'Samerim', which is a Hebrew word 'Shomerim' and its meaning is 'keepers' or 'observers'. Thus the word 'Samaritans' means that they are to keep the holy Torah. In this essay, three different suggestions have been summarized in connection with the origin

of Samaritans. The most plausible theory on the origin of Samaritans is that they were descendant of native Israelites who lived in the northern part of Israel, and were not exiled. Some of Samaritans wanted to keep their religious piety and purity, so they inhabited at Shechem with unknown reason. In the Samaritan religion, they believe in the only God, and Moses as the only prophet. The most authoritative cannon in the Samaritan religion is the Samaritan Pentateuch which is understood as God's revelation. The Mount Gerizim is the only sacred place in Samaritan religion, and the Taheb will appear at the end of world, and he will govern the whole world in order to bless Samaritans. Second, the meaning and the role of the Taheb have been examined. The meaning of the Taheb in the Samaritan eschatology is found in the Samaritan Aramaic equivalent of the Hebrew *bwv* which means to return and to restore. The role of the Taheb, as implied in the meaning of the word, is to restore the true worship at the Mount Gerizim, and is to reveal the truth. Other role of the Taheb is to convert the people in order to return back to God. The Taheb in the Samaritan literature is depicted as the Samaritan Messiah, or a prophet like Moses, or the eschatological prophet. Finally, the Taheb implied in the New Testament, in particular, John 4:19 and 4:25 have been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figure of Taheb, in order to find whether the passages show indirectly the Samaritan Messiah, the Taheb. The result is more positive than expected.